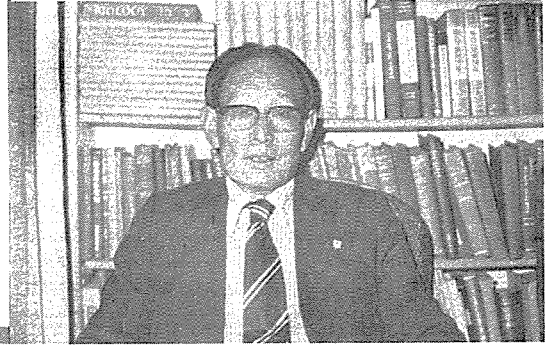


“다른 사람을 도울수 있는 직업을 준비해야...”

金憲奎 博士篇(上)



○ 略 歷 ○

- 1910. 3 黃海道 載寧출생
- 現住所 서울特別市麻浦區蒼川洞 2-97 (TEL : 32 - 0319)
- 1934 崇實專門農學科卒
- 1937 日本北海道帝大農學部卒
- 1940 美코넬大大學院卒 M.S (科學碩士)
- 1944 ~ 45 載寧雙星農場技師
- 1961 北海道大에서 農學博士
- 1945 ~ 53 駐韓美國大使館, ECA, UNKRA 농업고문
- 1945 ~ 75 梨花女大교수 겸 自然史博物館長
- 1964 ~ 國際鳥類保護委員會 東南亞地域委 副委員會
- 1967 ~ 建設部國立公園委員會 審議委員會
- 1971 ~ 國立公園協會理事, 自然保存協會理事
- 1974 ~ 國際두루미財團자문위원
- 1977 ~ 英國動物保存學會諮門委員
- 1978 ~ IUCN 國立公園委員會委員
- 1979 ~ IUCN 教育委員會委員
- ▲ 賞勳 : 서울市文化賞('61), 國民勳章冬栢章('70)
- ▲ 著書 : 昆蟲學特講(梨大出版部), 世界의 國立公園(1970, 청암出版社), 自然保護를 위한 環境教育(1978, 금란出版社). 어린 이를 위한 環境教育(1979, 금란出版社).

◇ 昆蟲學과 인연을 맺고 ◇

어렸을때부터 특별히 동물이나 곤충에 관심을 가진것은 아니고 고향인 黃海道에 黃海金剛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아름다운 長壽山이 있어 봄 가을 꽃피고 단풍들면 원족가기가 일수였다. 이

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自然에 관심이 커진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곤충을 본격적으로 연구한것은 北海道大學에 가면서 부터이다. 어려운 입학시험을 통과해 입학하고 보니 남들이 좀 하지 않는 것을 해서 稀小價値를 노려보고 싶었다. 당시 한국

인으로 곤충학자라고는 한사람도 없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가능성도 컸다.

그러나 곤충이라면 생물학을 연상하던 나로서는 농학부에서 곤충학을 강의하는 것을 보고 다시 놀랐다. 지금도 전세계에서는 농학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수확량의 20%를 해충이 먹어 치우는 실정에서는 당연한 이치이다. 종자에서부터, 잎, 열매, 수확된 곡식등 어느단계에서나 해충은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2할에 달하는 감량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농학자가 곤충 연구를 하지 않을수 없고 곤충학자는 농학연구를 하지 않을수 없다.

또 곤충을 공부하다 보면(鳥)가 곤충을 잡아 먹고 살기 때문에 새가 부전공이 되었고 또 새를 전공하다 보면 곤충이 부전공이 되어버린다. 학문은 이처럼 전후좌우 상호 연계성이 있는가 보다.

◇ 少年期를 故郷에서 보내고 ◇

국민학교 입학무렵 보통 공립이 많았고 사립이 좀 있었는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나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하듯 사립학교인 명신보통학교에 입학했다.

1학년때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길거리에 나갔다가 말타고 밀어 부치는 일본헌병의 말발굽에 채어 크게 혼난 기억도 있다.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만 당시 이 학교에는 한경운 이라는 아주 훌륭한 선생이 계셨는데 이사람은 항상 「이다음 성장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수 있는 직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다. 곧 教師, 醫師, 牧師, 辨護士등 「사」가 붙는 직업을 갖으라는 이야기였다. 어려서도 무척 감명깊게 들어서 일생동안 잊지 않아 내가 그뒤 선생을 택했는지 몰라도 어릴때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느껴진다.

또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 갈때 우등상을 받았는데 상품으로 받은 것이 動物學 교과서였고 그책속에는 천연색으로 갖가지 사진이 가득히 들어 있었다. 나는 이것을 자랑삼

아 간직하고 늘 쳐다 보곤했다. 山에 원족이라도 가는 때면 자연관찰에 열중하던 기억도 새롭다.

지금 정년 퇴직을 하고도 자연보호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는 것도 이덕택이 아닌가 생각한다.

내가 특히 농학을 택한 것은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7할이상이 농민이고 또 이 공부를 조금만 잘하면 이들을 도울길이 있겠다고 생각해서였는데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자신이 서지를 않는다.

◇ 日本留學 - 大學時節 ◇

崇實專門을 1등으로 졸업하자 당시 이학교 교장 윤산은박사는 「너를 우리학교 교사로 양성 하겠으니 농학공부를 하고 오라」고 권유했다. 물론 崇專에도 농과가 있긴 했지만 北海道大는 農科로 손꼽히는 대학이어서 그곳으로 진학키로 결정했다.

그때 일본大學에는 한국인이 얼마 없었고 북해도大에서는 장상욱(前高大農大學長) 씨, 김명년(前高大) 씨 등과 같이 공부했다.

北海道大는 일본에 현대적 대학이 없을때 美國매세츄세츠대학 총장을 일본정부가 초청하여 우리나라에 현대식 대학을 하나 세워달라고 위촉, 국가간 교섭에 따라 세운 대학으로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 대학과 대학촌을 동시에 설계 완성했다. 그래서인지 캠퍼스는 일본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웠으며 새파란 미국잔디와 느릅 나무가 가지런했다. 대학촌 역시 번지수만 알면 누구나 찾을수 있게 번지가 1번번호 순서에 따라 메겨져 있었다.

그당시 강의 내용도 지금과 비슷해서 곤충학만 하더라도 단순히 과목 하나가 아니고 분류학, 생리학, 형태학, 응용등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었다.

◇ 一時 歸國後 美國으로 ◇

졸업후 崇專교수로 나오려는데 당시 교장인 美國인이 神社參拜거부로 본국추방령을 받게 되었

다. 이교장이 나한테 편지하기를 「내가 신사참배를 거부했더니 사이도 총독이 돌아가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귀국하게 되었다. 고베항에서 배를 타고 갈테니 그곳에서 나하고 좀 만나자」고해학 기중이지만 고베항으로 급히 갔다.

둘이 만나 한참 눈물을 흘린후 그교장은 「너를 데려다 교사를 만들려 했는데 신사참배문제로 학교가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고 또 돌아가 교사를 하려면 신사참배를 거부할수도 없을 터인즉 나는 그것도 원치 않는다. 졸업하면 곧 미국으로 데려 갈 터이니 아무 곳에도 취직하지 말고 평양에 가서 킨슬러라는 선교사를 만나라」고만 일러 주었다.

졸업하니 각학교나 직장에서 여러가지 제의가 있었고 崇專에서도 신사참배키로 하고 학교廢校는 면했으니 돌아오라는 전보가 왔다. 이런 저런 제의에 확답을 앓고 평양으로 킨슬러 선교사를 찾아가 맥퀸교장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자기가 美國에 전보로 물어보고 대답하겠단서 여관 그것도 작은 여관에 들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회답만 기다리고 있으란다. 당시 킨슬러 선교사집은 형사들의 감시하에 놓여 있어 출입이 부자유스러웠고 이렇게 나한테 지시 할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崇專에서 멀지 않은 자그만 여관에서 3일간 무료하게 보내고 나니 “YES”라는 電文을 보내왔다. 이 “YES”는 나를 학교에서 교사로 두느냐 미국에 보내느냐를 물은데 대해 미국에 보내라는 뜻이었다. 킨슬러목사는 자기가 배상을 준비할테니 빨리 떠나라는 재촉이었다.

고향에 돌아와 여권수속을 했더니 29일만에 여권이 나왔다. 제국대학 나왔겠다 사상적으로도 별문제가 없을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모양이다.

샌프란시스코에 닿으니 맥퀸교장이 시카고에서 친히 마중을 나와 주셨다. 맥퀸교장의 말아들인 맥카피는 韓國歷史 中에서도 李朝 5百年史를 연구하기 위해서 마침 이날 우리 나라로 떠나기 때문에 이일저일 겹하여 나온 셈이었다.

맥퀸校長을 따라 시카고에서 1년을 보낸뒤 뉴욕 주립대학, 코넬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아 공

부했다.

◇ 美·日두나라 大學工夫 ◇

北海道대는 미국인이 세운 학교라서 비교적 자유스러운 곳이었지만 美國은 이와 비교할바가 못되었다.

모두 남녀공학에 4학년 여학생이었고 매주 목금토 3일은 학생관에서 끊임없이 연극, 영화, 파티가 계속되었다. 학생들의 사교활동이 활발함이 특히 눈에 띄었다.

도서관의 완벽함이란 상상할수도 없을 정도였다. 한예를 들어보자.

나는 일주일에 3시간 식물 생리학을 공부했는데 강의량도 많고 진도도 빨랐으며 숙제는 매주 듬뿍 내주었다. 도서관에 가면 어여쁜 아가씨 너댓명이 앉아서 무얼 공부하러 왔느냐고 묻는다. 식물생리학 공부를 하러 왔다면 책을 골라 페이지를 들추고 여기에서 저기까지 요약, 타이핑해가져가면 틀림없이 100점 맞을 수 있다고 가르쳐준다. 깜짝놀라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고 물으면 우리 도서관원들은 각교수와 항상 연락되어 있어서 어느교실 어느 강의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래서 오늘 다못하면 이책을 집으로 가져가서 내일 아침 8시까지만 반납 하라고 친절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강의는 일년 내내 8시 15분에 시작되기 때문에 8시까지 책을 꼭 반납해야 하고 이시간을 잘 지켜지며 부득이 어길때는 벌금이 과해진다.

지금은 잘몰라도 日本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던것 같다. 마침 내연구실 옆이 도서관이라 수시로 이용을 했지만 시설·도서·제도등 어림도 없었던것 같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식으로 도서관을 이용했고 도서관은 바로 학생생활의 센터 역할을 했다. 다만, 아르바이트 학생은 하루 4시간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지만 이들은 또 4시간 노동으로 학비를 벌수가 있었다. 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차를고 놀러 다니는 건달들이 없지는 않은 것 같다.